



# 한 해 수놓은 빛나는 문화예술 이야기 속으로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달 2~8일 제주아트플랫폼에서 성과공유주간 운영... 예술교육·지원사업 결실 한눈에

올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펼친 다양한 문화예술의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예술교육과 창작지원 등 다채로운 사업의 결실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주아트플랫폼(옛 아카데미 극장)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마련한 성과공유 행사가 진행된다.

‘예술이 있다, 우리를 잇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2024 제주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주간-아트리치워크’에선 도민 대상 전시, 공연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준비됐다. 성과공유주간 동안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대상 역량 강

화 워크숍,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도 추진된다.

이 기간 제주아트플랫폼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축제 ‘장애예술축제-턴(TURN)’도 열린다.

전시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뿐만 아니라 장애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청년예술가 등 창작지원사업, 지역문화 확산사업 ‘구석구석 문화배달’ 등 재단의 주요 사업 성과가 소개된다.

3일엔 ‘2024 연애(年愛)편지’를 타이틀로 올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돌아보는 성과공유 행사가 마련된다. 이날엔 제주 노동요와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한 무용가 민수경의



지난해 열린 성과공유주간 행사 모습.

제주문화예술재단 제공

무대를 시작으로 음악, 문학, 시각 등의 분야별 공연과 사례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4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부문 2관왕을 안은 여유와 설빈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행사 기간 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인 ‘크리

스마스 소품 만들기’와 각종 사업 홍보부스가 운영되며, 현장에서 찍고 바로 가져갈 수 있는 포토박스 이벤트도 제공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과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 화폭 위에 엮어낸 삶의 조각들

### 백희삼 '바람이 흐른다' 전

백희삼 작가가 첫 개인전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50대 중반을 넘기며 “지금껏 가장 젊은 순간”이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고 했다. 작가의 삶과 작업이 맞닿은 순간들이 담긴 작품 속에서 오랜 시간 이어온 작업 여정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나에게 작업은 일상의 기록이자 삶의 일부”라며 “작업들

은 내 삶의 시간과 공간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의 삶과 겹쳐있었다”고 말한다.

20대는 현실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자신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은 작업들이었고, 결혼 후 작업 속에 담긴 ‘남은 분홍슬리퍼’는 슬리퍼가 닳도록 집안을 종횡무진하던 젊은 엄마였던 자신을 떠올리게 한다. 일상의 풍경과 일터를 오가며 보았을 세찬 바람에 흔들리는 들꽃의 풍경도



백희삼 작 '地實꽃II'

작업의 모티브가 됐다.

요즘, 작가의 시선은 팔순을 넘긴 어머니의 뒷발에 피어난 지실(地

實)꽃에 머문다. 그렇게 지나온 순간순간 시간의 흔적들이 차곡차곡 화면 위에 녹아든다. 작가는 “앞으로 나의 작업이 어디로 가닿을지 모르겠으나 어떤 것에도 위배되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고 싶다”고 전했다.

1일부터 제주시 아라갤러리에서 시작된 백희삼展 ‘바람이 흐른다’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오은지기자

## 따스한 선율, 열정으로 반짝이는 무대

### 라온·교원오케스트라 잇단 정기연주회

열정으로 빛나는 두 개의 무대가 잇따라 따뜻한 선율을 전한다.

오는 7일(오후 7시)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제주대학교 교원대학 라온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열리며, 8일(오후 5시)엔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주교원오케스트라가 정기연주회로 관객과 만난다.

2022년도 신입생들에 의해 창단

된 라온 오케스트라는 이번이 세 번째 정기연주회 무대다. 교내 공연장을 벗어나 처음으로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12명이 시작했던 무대엔 올해 34명이 단원이 올라, 성장한 모습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슈베르트의 교향곡을 비롯 영화음악 OST 등 다양한 곡들이 앙상블과 전체합주를

통해 연주될 예정이다.

제주교원오케스트라는 영화음악을 주제로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를 펼쳐 보인다. 지휘자 홍정도 편곡의 ‘헬부르의 우산’을 고승표(법환초 교사)의 피아노 협연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제주유스윈드오케스트라가 특별 출연해 무대에 풍성함을 더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영화觀

### 멜팅 포인트

희망은 발음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기 어려운 단어다. 힘주어 그것을 말할 때는 온 몸의 힘을 다 써야 하고 입가의 진동을 참아야 한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도 긴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말하는 것만이 그것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침바다 갈매기’는 희망이 절망의 반대말이 아니라 절망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이들이 서로에게 새긴 자신의 날말임을 보여주는 영화다.

쇠락한 어촌 마을의 풍경 속에는 각기 다른 절망의 얼굴을 간직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축축한 바람을 맞으며 일을 나선 늙은 선장 영국과 젊은 어부 용수와 그의 처 영란은 타국에서 온 사람이다. 영란의 시어머니인 판례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한 처지다. 영란은 고향의 식재료인 고수를 좋아하고 판례 또한 영란의 입맛에 어느덧 익숙해져 있다. 판례와 영란, 용수와 영국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 이들은 단란한 가족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절망하고 있다. 서로가 가진 절망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내거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불도저를 탄 소녀’를 만들었던 박이웅 감독의 신작 ‘아침바다 갈매기’를 보며 두 차례 크게 울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를 내면서, 한 장면은 울라고 만든 장면이 아니었고 다른 한 장면은 배우의 속도를 따라가면서 눈물이 흘러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였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홀로 있으면 고독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이들의 고된 하루 씩이 펼쳐지는 영화가 ‘아침바다 갈매기’이다. 용수는 판례의 아들이고 영국과 영란은 혈연 관계가



영화 ‘아침바다 갈매기’는.

아니지만 이들은 부자와 모녀지간 더 나아가서는 서로의 속내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동반자로 느껴진다.

‘아침바다 갈매기’는 묵묵하게 인물의 표정과 움직임, 쓸쓸한 등과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 까지를 목도하는 것으로 극화된 인물들의 외피에 정성스레 내피를 덧대는 영화다. 이러한 태도를 영화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견지한 박이웅 감독의 힘 있는 연출과 함께 윤주상, 양희경, 박종환, 카작 네 배우의 연기 앙상블 또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의 첨예한 화두들을 폭 넓은 세대의 이야기로 아우르며 단단하고 고유한 서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아침바다 갈매기’는 ‘장손’, ‘딸에 대하여’와 함께 관객들의 기억에서 쉬이 잊히지 않을 또 한 편의 올해의 독립영작의 넘새를 맡을 수 있고 내거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아침바다 갈매기’에서 나를 처음으로 울린 장면을 마주했을 때 나는 신기하게 스크린 속에 들어가 그 언덕을 힘겹게 오르는 동행이 된 기분이었다고 내 등에 판례의 맵고 뜨거운 손이 와 닿는 이상한 실감을 했다. 나는 차갑고 시린 삶의 절망들을 기어코 녹이는 이 영화의 뜨겁고 매운 순간들을 오래 기억할 것 같다.



진 명 헌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당 선**

제10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

**박명순**  
(제주공나물 영농조합법인 대표)

제10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otary **제주은하수 로타리클럽**  
회원 일동

**수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조재홍**  
(새마을지도자일사회 회장)

도농교류 및 농어촌 관광활성화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마을지도자일사회 회장 **강대중**  
강형준, 강시병, 고경택, 고명환, 고재철, 김동춘, 문덕열, 박문택, 송종화, 안창준, 오봉하, 임상언, 임상욱, 이태열, 이행준, 장봉준, 전경환, 조재홍, 주영삼, 천창수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르'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28 · 구독 750-2315 · 서귀지사 732-5552